



KOTRA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2회(화/목) 배포합니다.



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

📧 주요 내용

🎯 워싱턴 포커스

- (경제) 美 '24년 5월 FOMC 회의 결과 공개 및 시장 반응 1
- FOMC, 현행 기준금리 5.25~5.5% 유지 결정 발표. 현재 금리의 장기화 가능성 시사

🌐 경제통상 동향

- (IRA) 미국, 전기차 세액 공제 관련 중국산 흑연에 대한 한시적 유예 조치 발표 전망 3
- (관세) 美, 무역법 301조 대중관세 검토 마무리...이르면 이달 중 결과 발표 3
- (관세) 트럼프 재선 시 모든 수입품에 10% 이상 보편관세 부과 고려 4
- (수입규제) 美 상무부, 한국산 등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예비 판정 발표 5

⚖️ 의회법안 동향

- 세관 수역, 대러 제재 등 총 3건 6

🗨️ 이시각 헤드라인

-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7
-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8

📅 워싱턴 주요일정

| | |
|--------|---|
| 5.3(금) | • 4월 미국 실업률 (U.S. unemployment rate) |
| 5.7(화) | • 4월 미국 소비자 신용 지수 (Consumer credit) |
| 5.8(수) | • 3월 미국 도매 재고 지수 (Wholesale inventories) |
| 5.9(목) | • 5월 1주 신규 실업수당청구 건수 (Initial Jobless Claims) |

(경제) 美 '24년 5월 FOMC 회의 결과 공개 및 시장 반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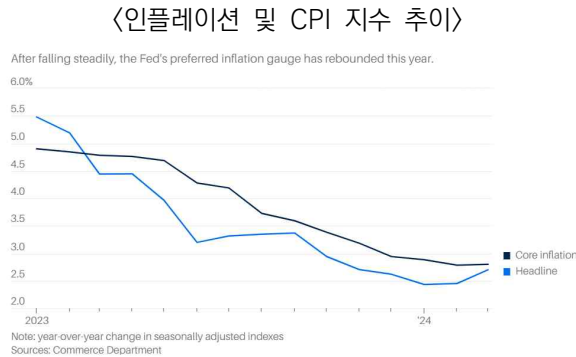
1. 개요

-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회의(4.30~5.1) 결과, 연준은 현행 기준금리 5.25~5.5% 유지 결정 발표
 - 이번 성명문은 지난 3월과 동일한 내용 가운데 “최근 몇 개월간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2% 목표를 향한 추가 진전이 부족하다”는 문구 추가
 - 파월 연준의장은 "인플레이션 하락은 확신하지만, 그 과정에 추가적 시간이 예상. 금리를 필요한 만큼 오래 유지할 것"이라며 현재 금리의 장기화 가능성 시사
 - 최근 경제 전망 지표에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고, 경제가 예상보다 강력하여 향후 인플레이션 추이를 특히 주시할 것임을 확인
 - 그러나 파월 의장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“현재의 정책 기조가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다는 증거를 현재 찾을 수 없다”고 설명
- 6월부터 재무부 채권의 만기 한도를 現 600억 ⇒ 250억 달러로 축소 계획 발표
 - 고금리 유지에 따라 양적 긴축을 둔화하여 유동성 공급하겠다는 의지로 해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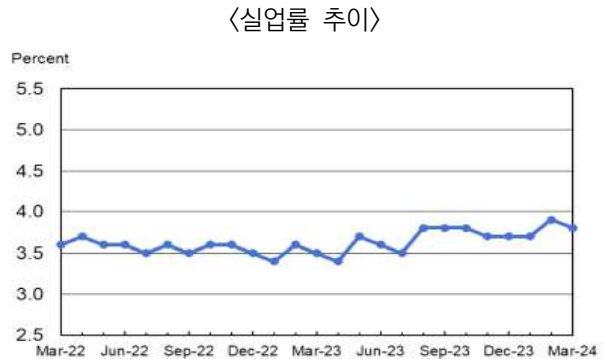
2. 현지 반응 및 전망

- (주요 경제지표) 물가 지표는 최근 다소 상승, 실업률은 안정적인 추이 지속
 - 연준의 2% 목표의 기반이 되는 개인소비지출 측정치는 올해 2월까지 2.5%였으나 3월 2.7%로 소폭 상승

- 실업률은 안정적으로 낮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4월에도 3.8% 수준 예상



[자료] statista.com



[자료] 미국 노동청(BLS)

□ (시장 반응)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로 시장은 혼조세

- S&P 500 지수는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중 1% 이상 상승한 후 최종 0.3% 하락 마감
- 기준금리 전망을 반영하는 2년 만기 미국채 금리는 약 9bp 하락한 4.96%,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는 0.5bp 하락한 4.63% 기록

□ (언론 반응) 연준의 이번 발표는 금리 인하 회의론 및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진정시키려는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

- 파이낸셜타임스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예상보다 "비둘기파적"이라고 평가
 - 작년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예상보다 강력한 1분기 지표에 대해 더 매파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 완화
- 월스트리트저널은 제조업과 주택 등 일부 경제 부문이 금리 인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징후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라움 표명

| | |
|-------|--|
| ▪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이지연 |
| ▪ 자료원 | 연방준비위원회(5.1), FT(5.1), WSJ(5.1), 블룸버그(5.1) |

(IRA) 미국,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중국산 흑연에 대한 한시적 유예 조치 발표 전망

- (개요) IRA ‘전기차 세액공제조항’ 중국산 흑연 사용 세부 규정, 발표 예정(5.3)
 - 바이든 행정부는 IRA ‘친환경차 세액공제조항(30D)’ 내 해외우려기관(FEOC) 규정에 따른 ‘중국산 흑연 사용 금지’의 한시적 유예 조치 적용 예정
 - 미 재무부는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 중 배터리 등 핵심 부품과 광물이 FEOC에서 생산·가공되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잠정 가이드스를 발표한 바 있음(‘23.12)
- (상세) 배터리 핵심 광물 흑연을 ‘추적 불가 물질’로 분류, 한시적 규제 유예 전망
 - 최종 규정은 EV 배터리 핵심 광물인 흑연*을 ‘추적 불가능한 배터리 물질(non-traceable battery materials)’로 분류, ’27년까지 한시적 규정 집행 유예 전망
 - * 중국은 전 세계 천연 흑연 생산의 60%, 합성 흑연 69%, 제련 공정 부문 90% 점유율 차지
 - 기존 자동차·배터리 업계는 중국산 흑연 정제·생산의 높은 점유율과 단기간 내 대체 공급망 발굴 어려움, 보조금 적용 차량 축소(기존 43개 ⇒ 19개) 등 부정적 영향을 우려, 행정부에 ‘FEOC 유예와 명확한 규정 도입’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음.
 - 한편, 공화당은 IRA 내 전기차 세액공제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, 전기차 세액공제의 전체 폐지 법안(S. 4237)을 발의할 예정(5.2)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▪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정연호 |
| ▪ 자료원 | 폴리티코(‘23.12.1), (4.30), (5.2) |

(관세) 美, 무역법 301조 대중관세 검토 마무리...이르면 이달 중 결과 발표

- (개요) 백악관, 국내 영향, 정치적 파장 등 고려해 대중관세 검토 마무리 단계 관측
 - 미국은 중국의 무역 정책이 미국 산업의 의존성과 취약성 심화시킨다며 2018년 무역법 301조를 바탕으로 중국산 수입품 수천억 달러 상당에 관세를 부과 조치 중
 - * 301조 관세 예외 조치도 5월 31일 만료 예정, 이에 301조 관세 검토 결과 발표 임박 추정

- (상세) 현지 언론, 관세 해제 가능성은 희박, 최소 품목에 대해 인하 가능성 제기
 - 현지 언론은 업계의 지속적인 관세인하 요청에도 해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,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비재 관세에 한해 일부 인하 기대 주목
 - 전기차, 태양광패널 등 중국의 과잉생산 위협의 대처를 위한 품목은 관세 인상 유력, 관세 인상 조치는 실효성보다 상징적 측면에 집중, 관세 수준은 불투명하다고 예상
 - 미국기업연구소(AEI) 데릭 시저스 연구원은 “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현안에서 트럼프 대선 캠프가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 관세 검토를 통한 대대적인 변화를 도모하지는 않을 것” 전망

| | |
|-------|-------------|
| ▪ 작성자 | 워싱턴 무역관 김준희 |
| ▪ 자료원 | 인사이드(5.1) |

(관세) 트럼프 재선 시 모든 수입품에 10% 이상 보편관세 부과 고려

- (개요)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 시 모든 수입품에 10% 이상의 보편관세와 특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고율의 관세 부과 계획 발표
 - 트럼프는 타임(Time)지와의 인터뷰에서 관세를 “국가를 보호하는 방법”으로 설명하면서, 이러한 조치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
 - 그러나 타임지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오히려 철강산업 고용률 감소 등 과거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
- (상세)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강조
 - 자동차 제조업이 멕시코와 중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, 미국 시장의 경쟁력을 위해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힘
 - 유럽연합(EU), 인도, 브라질 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의 무역에서도 불공정이 있음을 지적하며, 미국 제품의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

| | |
|-------|------------|
| ▪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정수나 |
| ▪ 자료원 | 인사이드(4.30) |

(수입규제) 美 상무부, 한국산 등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예비 판정 발표

• (개요) 상무부는 현지 시각 5.2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예비 판결 공개

- 한국, 중국, 인도, 인도네시아, 멕시코, 베트남, 콜롬비아, 도미니카공화국, 에콰도르, 이탈리아, 말레이시아, 대만, 태국, 튀르키예, 아랍에미리트 등 14개국 대상

* 중국, 인도네시아, 멕시코, 터키 이상 4개국에는 부당 보조금 혐의가 적용되어 상계관세 조사 병행 중

- 우리나라 10개 제조사를 대상으로 2.42 ~ 43.56%의 덤핑마진 예비 판정

* 기타 모든 한국 기업(All-Others) 대상 2.42% 적용

〈국별 덤핑마진 예비 판결 결과〉

| 국가 | 대상 기업 수(제조사 기준) | 덤핑마진 |
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중국 | 21개 | 4.91 ~ 376.85% |
| 콜롬비아 | 2개 | 8.85 ~ 34.47% |
| 에콰도르 | 2개 | 17.23 ~ 51.20% |
| 인도 | 13개 | 3.44 ~ 39.05% |
| 인도네시아 | 3개 | 5.66 ~ 112.21% |
| 이탈리아 | 7개 | 15.30 ~ 41.67% |
| 말레이시아 | 5개 | 26.70 ~ 27.51% |
| 멕시코 | 5개 | 9.18 ~ 18.07% |
| 한국 | 10개 | 2.42 ~ 43.56% |
| 대만 | 5개 | 0.73%(de minimis) ~ 67.86% |
| 태국 | 2개 | 2.02 ~ 4.04% |
| 터키 | 9개 | 45.41 ~ 605.72% |
| UAE | 10개 | 9.13 ~ 42.29% |
| 베트남 | 28개 | 2.85 ~ 41.84% |

[자료] 상무부 국제무역청(ITA)

- (향후 일정) 상무부 반덤핑 최종 판정(7.15) ⇒ USITC 산업 피해 최종 판정(8.29)
⇒ 관세부과 명령(9.5 예정) 순으로 진행 예정

-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▪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이정민 |
| ▪ 자료원 | 상무부 국제무역청(ITA) 홈페이지(5.2) |

미국 의회법안 동향

| 구분 (현행일) | 법안 (발의일) | 대표 발의자 | 법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세관 수역 (4.30) | H.R.529 (하) (’23.01.25) | Michael Waltz (공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미국 세관 수역 제한 확장법(Extending Limits of U.S. Customs Waters Act): 대통령 선언문 7219에 따라 세관 수역을 기선에서부터 12해리에서 24해리로 확장 하원 통과(402:6) |
| 대러제재 (4.30) | H.R.1042 (하) (’23.02.14) | Cathy McMorris Rodgers (공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 금지법(Prohibiting Russian Uranium Imports Act): 핵산업에서 대러시아 의존을 종식하기 위한 러시아산 저농축 우라늄 수입 금지 법안 ’23.12.11 하원 에너지/상업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통과 상원 통과(만장일치) |
| 미국 공급망 강화 (4.30) | S.2116 (상) (’23.06.22) | Gary Peters (민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미국 제조 지원 강화법(Strengthening Support for American Manufacturing Act): 공급망 회복력, 제조 및 산업 혁신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효율성, 영향 평가 및 개선 방안 관련 상무부에 보고 의무 부여 상원 통과(만장일치) |

* 미국 동부 시간 5월 2일 15시 모니터링 기준

언론사 주요 보도내역

| 언론사 | 주요 보도내역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The Wall Street Journal | <p>Sony, Apollo Make \$26 Billion All-Cash Offer for Paramount (소니·아폴로, 260억 달러 전액 현금으로 파라마운트 인수 제안)</p> <p>소니와 사모펀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는 파라마운트 인수 관련 260억 달러 전액 현금 인수 제안. 파라마운트는 스카이댄스 미디어와의 합병을 독점 협상 중이나, 독점권은 금주 금요일 만료 예정</p> |
| The Washington Post | <p>Biden: 'Destroying property is not a peaceful protest' (반전시위에 바이든 입장 표명...폭력시위 규탄해)</p> <p>바이든 대통령은 대학 반전 시위대를 대상으로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가 있으나 법치주의 역시 지켜져야 하며, 폭력시위 및 혐오 표현 등은 보호받지 못함을 강조</p> |
| The New York Times | <p>Inflation Is Stubborn. Is the Federal Budget Deficit Making It Worse? (계속되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은?)</p> <p>연준의 인플레이션 완화 노력이 계속됨에도 소비자 물가가 잡히지 않는 이유로 경제학자들은 팬데믹 이후 주택 및 자동차보험료의 급증과 같은 구조적 문제, 정부의 재정 적자 등을 제기</p> |
| CNN | <p>A third of Americans could have had data stolen in big health care hack (대형 의료보험사 해킹 공격으로 미국인 3명 중 1명의 개인정보 유출)</p> <p>지난 2월 미국의 대형 의료보험사 유나이티드 헬스의 자회사인 체인지 헬스케어가 해커조직 '블랙캣'으로부터 해킹공격을 받아 미국인 1/3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돼</p> |
| USA Today | <p>Biden pledges to accept election results, after Trump wouldn't commit without conditions (바이든은 선거 결과에 순응하겠다고 약속..트럼프는 인정 못해)</p> <p>트럼프가 위스콘신주 유세운동에서 '20년 위스콘신주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거짓주장과 함께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경우 대선 결과에 불복하겠다고 선언한 반면, 바이든은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약속</p> |

* 미국 동부시간 5월 2일 15시 기준

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

◆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, **경제통상리포트** (과거 리포트 : [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](#))

| 발간번호 | 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 | 발간시기 |
|---------|---|----------|
| US24-12 | 제6차 미국-EU 무역기술위원회(TTC) 내용 및 현지 반응 | 2024.04월 |
| US24-11 | 2024년 국별 무역 장벽 보고서(NTE) 주요 내용 및 시사점 | 2024.04월 |
| US24-10 | 바이든 행정부 4차 반도체 보조금 발표 주요내용 및 전망 | 2024.04월 |
| US24-09 | 2025년 美 대통령예산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| 2024.04월 |
| US24-08 | 2024년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 의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| 2024.03월 |
| US24-07 |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(MC13) 주요 성과 및 현지 반응 | 2024.03월 |
| US24-06 | 바이든 정부의 인도-태평양 전략 2주년 주요 성과 및 전망 | 2024.03월 |
| US24-05 | 최근 美/中/멕시코 무역·투자 동향 분석과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 | 2024.02월 |
| US24-04 | 제5차 미국-EU 무역기술위원회(TTC) 개요 및 현지 반응 | 2024.02월 |
| US24-03 | 백악관 인공지능(AI) 행정명령 후속조치 주요내용 및 관련 동향 | 2024.02월 |
| US24-02 | 주요기관이 바라본 지정학과 무역의 상관관계 | 2024.02월 |
| US24-01 | 미국 정치권의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강화 동향과 시사점 | 2024.01월 |
| US23-32 | 미국 연방정부 배터리 산업 육성 인센티브 및 주요 프로젝트 현황 | 2023.11월 |
| US23-31 | 백악관 인공지능(AI) 개발 및 활용에 관한 행정명령과 관련 동향 | 2023.11월 |
| US23-30 | 2024년 미국 대선 전망,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 주요 내용 및 시사점 | 2023.10월 |
| US23-29 | 美 의회 임시 세출 결의 처리 경과 및 향후 섣다운 전망 | 2023.10월 |

◆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, **코트라 인터뷰 시리즈** (과거 인터뷰 : [유튜브 KOTRA TV](#))

| 인터뷰번호 | 제목 | 바로가기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코인사-17 (2024.4.4) |  한미 FTA 주역에게 들어보는 글로벌 통상 전망 |  |
| 코인사-16 (2024.2.7) |  2023년 주요 키워드 & 이번 2024년은? |  |

| 문의 | 이메일 | 전화 |
|----|--|------------------|
| | seogil.chang@kotra.or.kr jwshim@kotra.or.kr | +1) 202-857-7919 |